

6월 Market Index			
↑ 코스피	4026.45	↓ 코스닥	898.17
	(+22.03)		(-3.72)
↑ 금리 (한국예 9년)	2.834	↓ 환율 (원·달러)	1448.55
	(+0.067)		(-0.85)

재계, 불확실성 속 경영전략 재정비 속도전

AI·리벨런싱으로 초격차 새판 짬다

주요그룹 ‘미래 먹거리’ 초점 SK, 차세대 성장축 중심 재편 LG ‘선택·집중’으로 中 대응 삼성, 내달 글로벌 전략회의

국내 주요 그룹들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안정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 전략 점검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각 그룹마다 당면한 과제는 다르지만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초격차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 먹거리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오는 8일까지 경기 이전 SKMS 연구소에서 CEO 세미나를 열고 리벨런싱, AI 등을 핵심 주제로 논의에 나선다. CEO 세미나는 6월 경영전략회의(옛 확대경영회의), 8월 이천포럼과 함께 SK그룹의 핵심 연례행사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인사 이후 세미나를 개최해 새롭게 구성된 경영인들과 적극적으로 내년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리벨런싱은SK그룹이 추진해온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으로, 비주력 사업은 매각하고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최 회장은 지난 3일 SK AI 서밋에서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리

벨런싱 작업은 내부가 튼튼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AI 역시 올해 핵심 주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대부분 계열사들은 AI 트랜스포메이션에 대응하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SK 관계자는 “모든 계열사들이 사업 계획을 준비하면서 AI를 빼놓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됐다”고 말했다.

LG그룹은 지난달 23일부터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전자 계열사를 시작으로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유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사업보고를 순차적으로 받고 있다. 구광모 회장은 이같은 주요 계열사의 한 해 사업 성과와 내년 전략을 듣고 장기적인 전략을 구상할 전망이다. 현재 LG그룹은 가전과 TV, 석유화학, 배터리 등 핵심 계열사들이 중국 기업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으며 미국발 관세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은 지난 9월 경기도 이전 LG인화원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에서 중국 경쟁사들의 자본·인력 투입 규모를 경계하며 “그동안 구조적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으로 지속 가능



산불진화장비 시찰하는 尹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강원도 원주시 산림항공본부에서 열린 산불진화 관·군 합동훈련 점검에서 산불진화장비를 시찰하고 있다. /뉴시스

한 경쟁 우위와 수익성 강화를 위한 ‘사업의 선택과 집중’, 차별적 경쟁력의 핵심인 ‘위닝 R&D’, ‘구조적 수익체질 개선’ 등 크게 3가지를 논의해 왔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

한 바 있다. 삼성은다음달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업 계획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獨 플렉트 품고 B2B 공조 강화

산업용 공조 시장 본격 진출 AI·플렉트 결합 새기회 모색

삼성전자가 고성장 중인 글로벌 공조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한다.

삼성전자는 유럽 최대 공조기 기업체인 독일 플렉트그룹(이하 플렉트)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수를 통해 삼성전자는 플렉트의 생산·판매 거점 등 핵심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조 솔루션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양사의 제품·서비스를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플렉트는 100년 이상의 역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센터, 대형 상업시설·병원 등에 중앙공조, 정밀 냉각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10여 개의 생산거점과 유럽·미주·중동·아시아까지 폭넓은 판매·서비스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또 ▲터널·선박·방산용 환기, 화재 안전 시스템을 제공하는 ‘우즈’ ▲공기조화·유동 솔루션을 담당하는 ‘썬코’ ▲자동차 기반 빌딩 제어 전문 회사 ‘SE-Elektronik’ 등의 자회사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인수로 삼성전자는 기존에 강점을 가진 개별공조 중심의 솔루션에서 각종 산업·대형 건물용 솔루션 및 고성장하는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공조 시장으로 본격 진출해 기업간 거래(B2B) 사업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플렉트의 고정밀 공조 제어 시스템과 삼성전자의 AI 기반 빌딩 통합 제어 플랫폼(스마트싱스 프로, b.IoT)을 결합해 스마트 빌딩과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에서 최근 AI 컴퓨

팅, 클라우드, 통신 등 급격한 수요 증가에 맞춰 고성장이 예측되는 대규모(Hyperscale) 데이터센터 공조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플렉트의 차별화된 제품과 브랜드 경쟁력을 활용해 차세대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최상위 공급업체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공장, 병원, 바이오 설비와 같은 대형 산업 공조 수요가 큰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도 지역별로 촘촘하게 구축된 공급망 기반으로 판매·서비스 역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메트로경제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산업의 판도 뒤바꿀 핵심동력 ‘피지컬 AI’ 새 패러다임 시대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가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이란 주제로 오는 11월 19일(수요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은 다시 한번 획기적인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AI는 소프트웨어(SW)란 한계를 깨고 물리적 현실과 결합하는 ‘피지컬(Physical) AI’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도 피지컬 AI를 ‘AI 모델의 완성형’이라고 말할 정도로 피지컬AI는 조만간 모든 산업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단순한 SW 형태의 AI를 넘어, 센서를 통해 주위 현실 세계를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물리적 장치를 움직이며 경험을 학습하는 ‘몸을 가진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AI가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언어 영역에 한정됐다면, 피지컬 AI는 AI가 스스로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환경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에서는 피지컬 AI의 이해에서부터 산업별 혁신 사례, 휴머노이드와 로봇의 진화 등 피지컬 AI의 등장으로 인한 산업 지형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
- 일 시 : 2025년 11월 19일 (수) 오후 2~5시
- 장 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기조강연 : 유태준 한국피지컬협회장(마음AI 대표이사)
 - 강 연 :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전무)
 - 강 연 :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이사
 - 강 연 : 양수열 클라우드웍스 CTO
 - 강 연 : 김하늘 에임인텔리전스 이사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참가신청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문 의 :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탄소감축 투자社 3000억 신규용자

10여곳 선발해 3년간 지원

정부가 탄소감축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전문 프로젝트를 맡을 기업 10여 곳 선발에 나선다. 이는 연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되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연계한 지원 정책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사업자들은 3년간 포함 3000억 원 상당의 용자 지원을 받는다.

산업통상부는 6일 탄소감축을 위한 시설과 R&D에 투자하는 ‘신규 16개 프로젝트’에 향후 3년간 2973억 원의 용자금을 지원한

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이른바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총 9630억 원(누계 기준)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혁신적인 R&D 프로젝트에 용자금 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년 상반기 1차 선정(9개 프로젝트)에 이어, 8월부터 2차 공고와 심사를 거쳐 16개 프로젝트가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강훈식 “관세·안보 팩트시트 이번 주 넘기지 않을 것… 원만한 협의 돼있다” /사진 뉴시스
▲김용범 “대미 투자 연 200억달러 정도는 외환시장 충격 없어… 중앙은행과 면밀 분석”

▲민주당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 27일 처리 추진”
▲정청래, 민주노총 찾아 “尹정권, 노동자 외면…李정부 다를 것”

▲국힘 “민노총 ‘새벽 배송’ 태클 시대착오적… 직업 선택 자유 박탈 말라”
▲이준석, 국힘과 선거 연대설에 “산술적 정치공학보다 새로운 도전 지속할 것”